

한국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결정요인*

권준모** · 김건홍*** · 김영식****

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 환경 변화가 한국 은행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내은행 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부가가치를 재무제표 상의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가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이자율, 총자산, 레버리지비율, 대출 자산 비중, 대출자산의 구성, 자금조달구조, 부실채권비율, 수익구조, 영업 점포 수 등의 특성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변수를 고려한 고정 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먼저 은행의 여신건전성이 부가가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부실채권비율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떨어뜨릴 경우 국내은행의 부가가치는 최대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률, 정책금리 등의 거시경제변수도 은행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총자산의 확대 역시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산 증가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의 상승을 동반하므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은행의 수익구조도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부가가치는 늘어났다.

주제분류 : B030602

핵심 주제어 : 한국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결정요인, 여신건전성, 고정효과 모형, 패널 자료

* 이 논문은 장은공익재단의 지원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한국은행 인사경영국소속 과장, e-mail: jmkwon@bok.or.kr. 이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은행 공식견해와 무관함.

*** 교신저자,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e-mail: kimku@hallym.ac.kr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kimy@snu.ac.kr

I. 머리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은행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로 인해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업무영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볼커룰(Volker Rule)을 통해 상업은행의 주된 업무를 전통적인 자금중개업무로 제한하였으며, 영국 은행개혁위원회와 EC 은행개혁고위전문가그룹도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분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은행들 간 외형확장 경쟁이 억제되는 한편 은행의 경영업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높은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이 유동성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말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율을 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 환경 변화는 은행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2007년 15조원에 달하였던 우리나라 은행산업(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기준)의 당기순이익은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3년 현재 3.9조원까지 줄어들었다. 더욱이 김세직·홍승기(2013)가 추정한 1991년 이후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 수준인 2%에 머물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도 20여 년간 거의 향상되지 못하는 등 은행산업의 장기적 성장세 역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은행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 은행 육성을 위해 수많은 정책이 수립·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3년 이후 개별 은행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이용한 패널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 다음, 이 중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최근

의 은행산업 수익성 악화를 야기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최근에 한국 은행산업의 분기재무제표를 활용한 패널 분석은 박창균·연태훈(2009), 강중구(2010), 한상섭·이병운(2012), 손진식·김수진(2013)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은행의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시장성수신 비중 결정요인이나 시장성수신 확대가 수익성, 위험성 등의 경영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 그칠 뿐, 은행산업의 전반적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까지 논의를 확장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모형의 종속변수로 순이자마진이나 시장성수신 비중,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 ROA), Z-스코어(z-score), 예상부도확률(expected default frequency; EDF) 등의 특정한 지표들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김세직·홍승기(2013)가 제시한 은행의 부가가치 추계방법을 이용하여 개별 은행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측정 한 후 이를 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부가가치가 해당 산업의 전반적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의 지속가능성 내지는 성장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부가가치를 재무제표 상의 순익계산서 구성항목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가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이자율, 총자산, 레버리지비율, 대출자산 비중, 대출자산의 구성, 자금조달구조, 부실채권비율, 수익구조, 영업점 수 등의 특성과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변수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건전성이 부가가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행 부실채권비율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떨어뜨릴 경우 국내은행의 부가가치는 최대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률, 정책금리 등의 거시경제변수도 은행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총자산의 확대 역시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산 증가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의 상승을 동반하므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끝으로 은행의 수익구조도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부가가치는

늘어났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분기별 부가가치 추계결과를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추이에 대해 알아본다. 제Ⅳ장에서는 부가가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그 추정결과를 제시한 다음, 제Ⅴ장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Ⅱ. 한국 은행산업의 분기별 부가가치 추이

1. 분기별 부가가치 추계방법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분기별 부가가치는 김세직·홍승기(2013)의 추계 방식을 분기별 자료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은행의 분기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4개 국내은행(7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한국외환은행]과 6개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1개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이하 ‘국내은행’이라 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수은행 중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주된 업무영역이 일반적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상이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 외에도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

대상기간은 2003년 이후로 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은행산업 구조조정이 대부분 2002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이후의 은행 구조조정은 2006년 4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간의 합병 1건뿐이다.

은행의 총부가가치(gross valued added: VA)는 식 (1)과 같이 임금 총액(wL)과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rK), 이윤(Π) 그리고 고정자산 감가

1) 2012년 3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농협은행으로 전환되었으나 과거 재무제표는 다른 사업부문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상각비(δK)의 합으로 계산된다.

$$VA = wL + rK + \Pi + \delta K \quad (1)$$

여기서 임금총액(wL)은 은행계정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인건비지출에 해당하는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하였다.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rK)는 은행계정 대차대조표 상의 유무형자산잔액(K)에 '잔액 기준 가중평균수신금리(연율)/4'(r)를 곱하여 추정하였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δK) 역시 유무형자산잔액(K)에 분기별 감가상각률($\delta = 2.46\%$)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윤(Π)은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조세공과금(법인세 제외)과 기부금을 더한 값으로 추계하였는데, 분기별 조세공과금과 기부금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10.25%)을 곱하여 계산하였다.²⁾

모든 변수는 금융보험업 GDP디플레이터(2010년=100)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변환하였다. 금융보험업 GDP디플레이터와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rK) 계산에 필요한 가중평균수신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자료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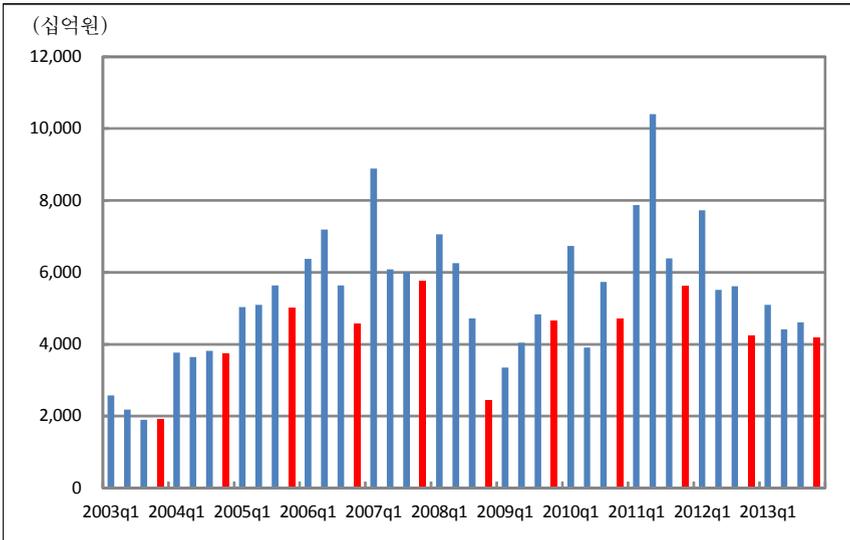
2. 분기별 부가가치 추계결과

2003년 이후 국내은행의 분기별 부가가치 추계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국내은행의 분기별 부가가치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1/4분기~2008년 2/4분기 중에는 평균 6.7조원 내외를 기록하였다. 리먼사태 직후인 2008년 4/4분기에 2.4조원까지 급감한 국내은행의 부가가치

2) 원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와 조세공과금, 기부금은 손익계산서 상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하위 계정과목으로 그 값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은행 요약손익계산서에서는 모든 세부 항목의 계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NICE평가정보 KISVALUE(<http://www.kisvalue.com>) 등에서 수집한 연간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그 값을 추정하였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와 조세공과금, 기부금 등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하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정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는 2011년 2/4분기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³⁾ 특히 2012년 2/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3년 2/4분기부터는 분기별 부가가치가 5조원을 밑돌고 있다.

【그림 1】 국내은행의 분기별 부가가치(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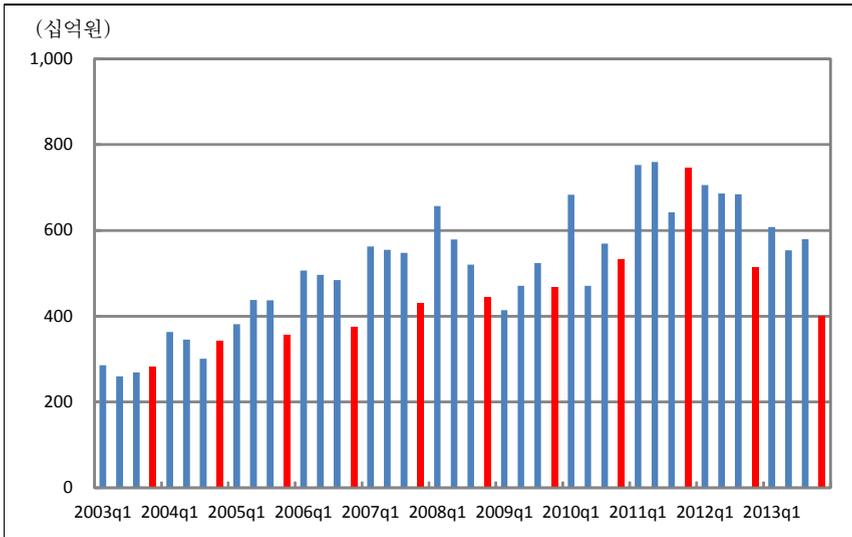
주: 1) 붉은색은 4/4분기를 의미함.

2) 모든 변수는 실질변수 기준.

〈그림 1〉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은행의 부가가치가 대체로 연말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2013년 중 분기별 평균부가가치를 계산해보면 1/4분기 5.9조원, 2/4분기 5.3조원, 3/4분기 5.0조원, 4/4분기 4.3조원으로 1/4분기에서 4/4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특히 4/4분기의 부가가치가 다른 분기에 비해 낮은 계절성(seasonality)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4/4분기의 부가가치가 작은 것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처리가 회계연도 결산 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 2011년 2/4분기에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6개 국내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씨티은행)이 총 3.1조원의 현대건설주식 매각이익을 실현한 데 기인한다. 3/4분기부터는 이러한 일회성 요인이 소멸하면서 국내은행의 부가가치가 예년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3】 지방은행의 분기별 부가가치(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주: 1) 붉은색은 4/4분기를 의미함. 2) 모든 변수는 실질변수 기준.

Ⅲ. 은행산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의 분배 측면에서 측정한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는 임금과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 이윤 그리고 감가상각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개념의 정의상 은행의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과 같다.⁵⁾

<그림 4>에서 대변(우측)은 수익 항목을, 차변(좌측)은 비용 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부가가치는 총수익과 총비용 간의 차이와 같다. 즉, 은행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총수익이 커질수록 또는 총비용이 작아질수록 증가하게 된다.

5) 2011년부터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K-IFRS 하에서는 종전의 영업외수익비용이 기타영업수익·비용으로 계상된다.

【그림 4】 은행 부가가치의 손익계산서 항목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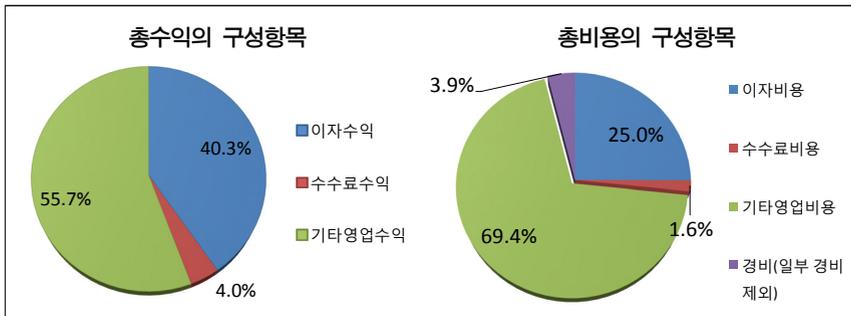
이자비용 예수금이자, 사채이자, 차입금이자 등	이자수익 대출채권이자, 유가증권이자, 예치금이자 등
수수료비용 지금수수료, 신용카드지급수수료 등	
기타영업비용 유가증권 처분·평가비용, 외환거래손실, 파생금융상품관련비용, 신탁업무운용손실, 총당금전입액, 대손상각비	
경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인쇄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전산처리비, 업무추진비 등	수수료수익 수입수수료, 수입보증료, 신용카드수입수수료 등
부가가치 인건비+법인세차감전순이익+조세공과금(법인세 제외)+기부금+고정자산에 대한 이자+감가상각비	기타영업수익 유가증권, 처분·평가·배당수익, 외환거래이익,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총당금환입액

총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이다(〈그림 5〉 참조). 이자수익은 다시 대출채권이자, 유가증권이자, 예치금이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대출채권이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기타영업수익은 유가증권 처분·평가·배당수익과 외환거래이익,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총당금환입액 등으로 나뉜다. 그밖에 각종 수수료수익이 존재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비이자수익, 즉 기타영업수익과 수수료수익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과 무관한 업무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성으로 볼 때 총수익은 총자산규모, 총자산에서 대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대출자산의 구성, 시장이자율, 비이자부문의 상대적 크기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타영업비용으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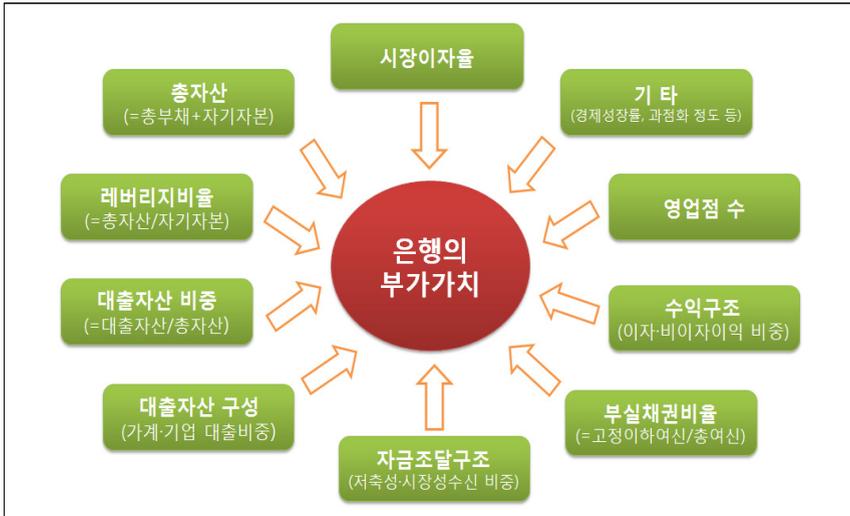
5)에서 보듯이 이자비용의 두 배에 이른다. 기타영업비용은 유가증권 처분·평가비용과 외환거래손실, 파생금융상품관련비용, 신탁업무운용손실, 총당금전입액 등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 비해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자비용은 예수금이자, 사채이자, 차입금이자 등을 포괄하는데 이 중에서 예수금이자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수수료비용과 경비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볼 때 총비용은 주로 총부채규모, 자금조달구조(저축성수신·시장성수신 간 상대적 비중), 부실채권비율, 시장이자율, 비이자부문의 상대적 크기, 영업점 수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총부채는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것과 같으므로 총부채규모는 총자산규모 및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림 5] 국내은행 총수익 및 총비용의 구성항목(2003~2013년 평균)



〈그림 6〉은 은행의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부가가치는 주로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들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그밖에 경제성장률, 은행산업의 과점(oligopoly)화 정도 등도 부가가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자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므로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국내은행 부가가치 결정요인과 그 추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6】 은행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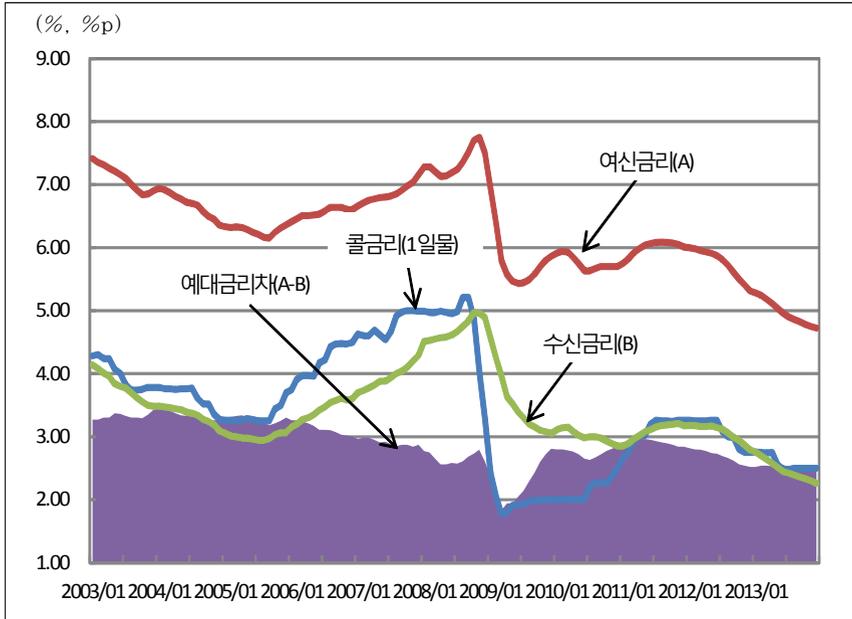
1.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은 여수신금리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비해서 국내은행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락)하면 여신금리와 수신금리가 모두 상승(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변동폭이 상이하다면 금리 인상(인하)에 따라 부가가치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그림 7〉는 2003년 이후 월별 콜금리(무담보 1일물)와 잔액 기준 여수신금리 및 예대금리차(interest rate spread)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시장이자율로 콜금리를 사용한 것은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자율이기 때문이다.⁶⁾ 시장이자율은 사실상 중앙은행 정책금리에 의해 좌우되므로 시장이자율이 은행 부가가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면 당연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6) 한국은행은 2008년 2월까지 콜금리(무담보 1일물)를 정책금리로 활용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 이른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곧바로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콜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다.

**【그림 7】 콜금리, 예금은행의 여수신금리 및 예대금리차 추이
(2003년 1월~2013년 12월)**



주: 1) 여수신금리: 예금은행 총대출 기준(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포함).
 2) 수신금리: 예금은행 총수신에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을 제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콜금리와 예대금리차 간 부(-)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즉, 과거에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예대금리차가 축소(확대)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이자율과 예대금리차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금융위기 이후의 상관계수=0.74), 이는 대출의 금리변경 주기가 예금보다 빨라서 금리상승(하락)분을 상대적으로 빨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1> 및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동금리부 비중이 높은 반면 예금은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등의 고정금리부 비중이 높다.

【표 1】 예금은행의 고정·변동금리 대출 비중 추이(2009~2013년)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업대출	고정금리	20.6	22.6	27.7	34.7	33.8
	변동금리	79.4	77.4	72.3	65.3	6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계대출	고정금리	6.6	5.1	9.3	19.8	21.3
	변동금리	93.4	94.9	90.7	80.2	7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예금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4개 특수은행(기업·산업은행, 농협·수협).

2)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표 2】 예금은행의 종류별 예금 비중 추이(2009~2013년)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요구불예금		11.3	10.1	10.1	10.2	11.0
저축성 예금	정기에·적금	56.2	60.1	62.1	61.4	59.2
	상호·주택부금	1.6	1.3	1.1	1.1	1.3
	저축예금	15.3	14.8	13.8	14.3	15.8
	기업자유예금	13.6	12.5	11.9	12.2	11.8
	기타 장기저축 ¹⁾	2.0	1.3	1.0	0.9	0.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예금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4개 특수은행(기업·산업은행, 농협·수협).

2) 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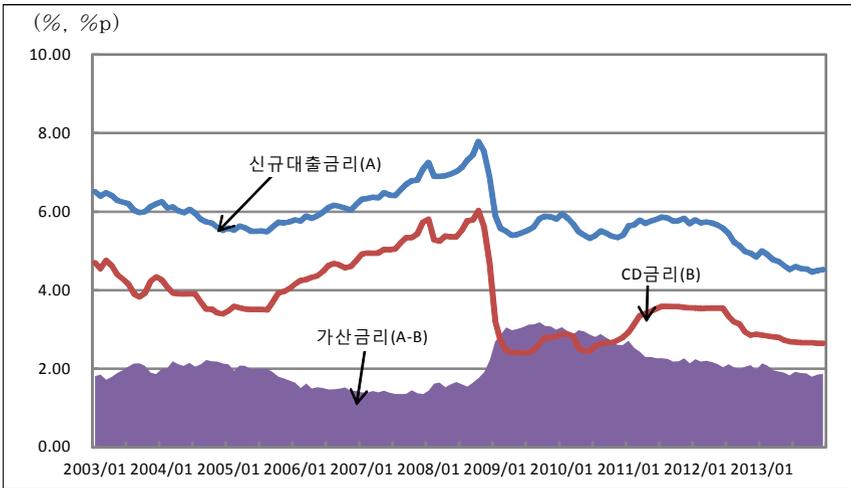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그런데도 금융위기 이전 시장이자율과 예대금리차 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했던 것은 2006~2008년 당시 은행들 간 외형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은행이 대출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덜 인상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⁷⁾ <그림 8>는 2003년 이후 은행의 대출가산금리(대출금리-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CD]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6~2008년 중에 그 수준이 이례적으로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

7) 이로 인해 기존의 국내연구에서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정책금리(콜금리)에 더 경직적으로 반응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석원(2007)과 윤재호(2011)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에 비해 더 경직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콜금리가 상승(하락)하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축소(확대)된다고 보았다. 분석기간을 보면, 김석원(2007)은 1999년 5월~2006년 8월을, 윤재호(2011)는 1999년 5월~2010년 10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8) 다만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대신 신규대출을 늘리는 전략을 취할 경우 수량효과가 가격효과를 압도하여 이자이익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 시기의 시장이자율 상승이 은행의 부가가치를 축소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림 8】 예금은행의 신규대출금리, CD금리 및 가산금리 추이
(2003년 1월~2013년 12월)**



주: 예금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4개 특수은행(기업·산업은행, 농협·수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편 2013년 6월말 국내은행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감규모를 시산한 한국은행(201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장이자율이 1% 하락할 때 보유채권 평가이익은 0.2조원 증가하지만 이자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이 1.6조원 감소함으로써 연간 약 1.4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총자산과 레버리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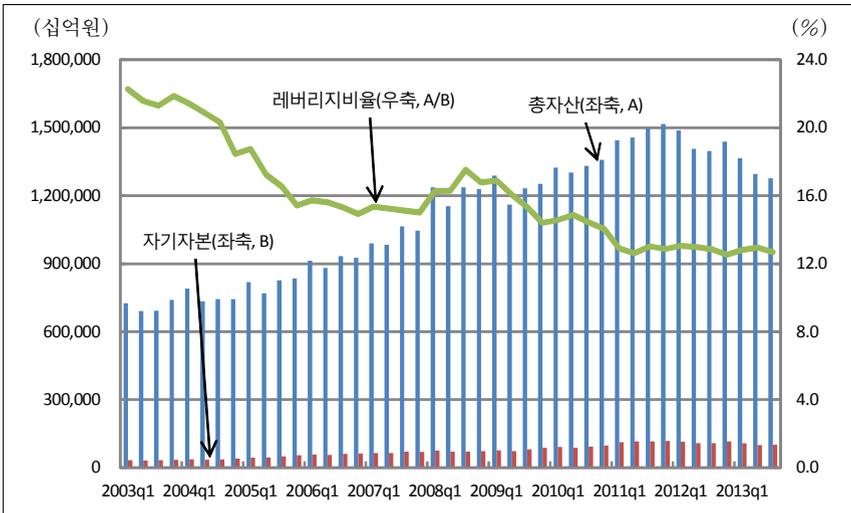
은행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높은 금리로 운용하기

- 8) 은행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산금리는 CD금리가 아닌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를 토대로 계산되나 둘 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CD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계산하였다.

때문에 총자산이 증가할수록 순이익 또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자산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부채) 두 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의 경우에는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자본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총비용은 감소하면서 부가가치는 증가한다.

〈그림 9〉은 2003년 이후 국내은행의 총자산,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총자산은 은행들 간 외형경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2011~2012년 중 다시 크게 늘어난 후 최근 들어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었다. 반면 자기자본은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2005년까지 자기자본 확충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하다가 2006년부터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008년 중에는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는 12.4~13.1 정도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국내은행의 총자산,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추이
(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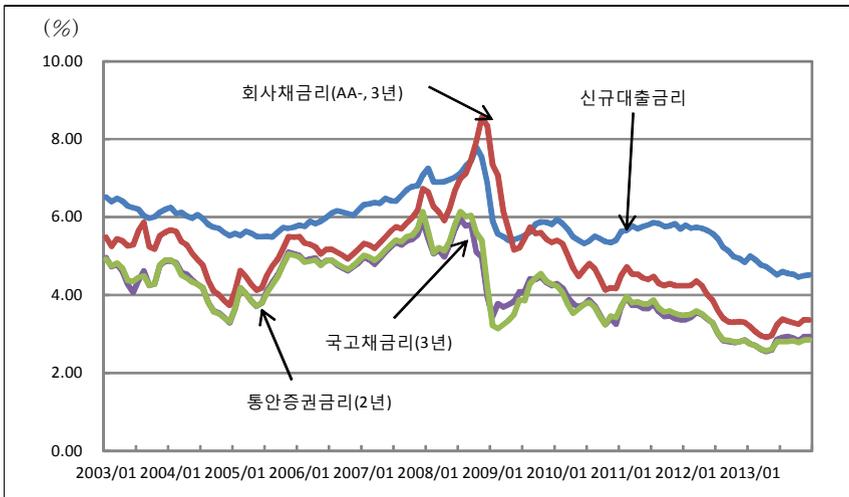
주: 모든 변수는 실질변수 및 기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3. 대출채권 비중과 대출채권의 구성

대출금리와 국공채·회사채금리 간 격차로 인해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이자손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0>은 2003년 이후 월별 신규대출금리와 국공채·회사채금리인데, 대출금리는 국고채(3년물)나 통안증권(2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회사채(AA-등급 3년물)금리보다도 소폭 높다.⁹⁾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출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국공채 또는 우량 회사채의 비중을 높일 경우 은행의 수익은 감소한다. 다만 대출자산의 경우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기업의 부도·파산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1>에서 국내은행의 총자산 중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하 '대출채권 비중'이라 함)은 대체로 68~73%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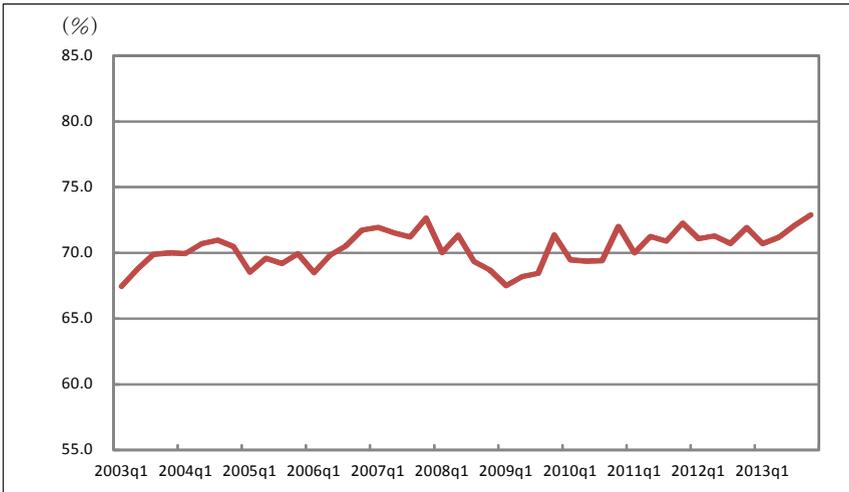
【그림 10】 예금은행의 신규대출금리와 국공채·회사채금리 추이
(2003년 1월~2013년 12월)



주: 예금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4개 특수은행(기업·산업은행, 농협·수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9) 한편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말 현재 국공채(국고채, 지방채, 통안증권) 44.6%, 회사채 34.1%, 주식 11.4%, 외화증권 등 기타 9.9%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그림 11]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비중 추이(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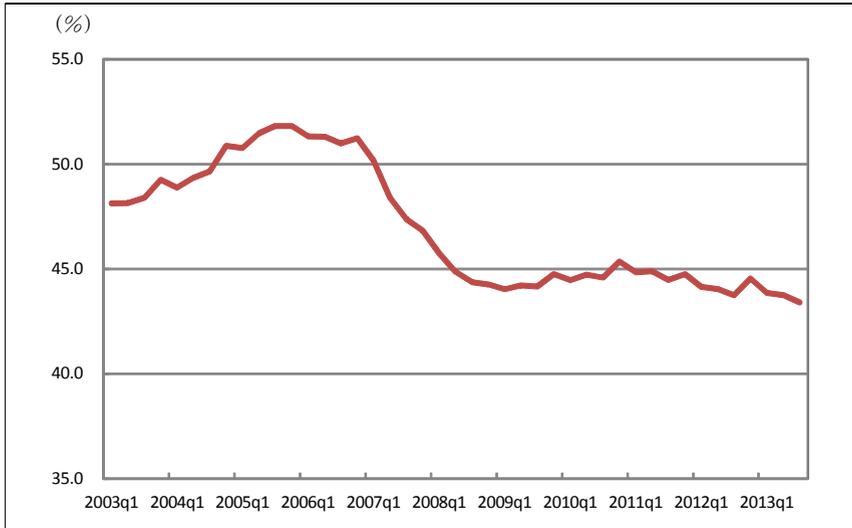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한편 대출자산의 비중뿐만 아니라 대출자산의 구성 역시 은행의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자산은 크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되는데, 대출자산 비중이 70% 내외에서 안정적인 것과 달리, 대출자산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하 ‘가계대출 비중’이라 함)은 <그림 12>에서 보듯이 2006~2008년 중 약 7.5% 하락하였다. 이 시기에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은 2005년 8월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 규제를 도입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¹⁰⁾ 2008년 11월 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2009년 9월 DTI 규제가 다시 강화되고 이후 가계대출 급증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가계대출 비중이 매년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¹¹⁾

10) 정부는 2005년 ‘8. 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DTI 규제를 최초 도입한 이래 2006년 3월 이를 투기지역에서의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본격적으로 적용(DTI 한도 40%)하였다. 2007년 2월에는 한도 40% 규제를 담보가액 6억원 미만 주택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DTI 규제는 2008년 11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11) 정부는 2009년 9월 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는 40%를 유지한 채 서울 기타 지역의 경우 50%, 수도권의 경우에는 60%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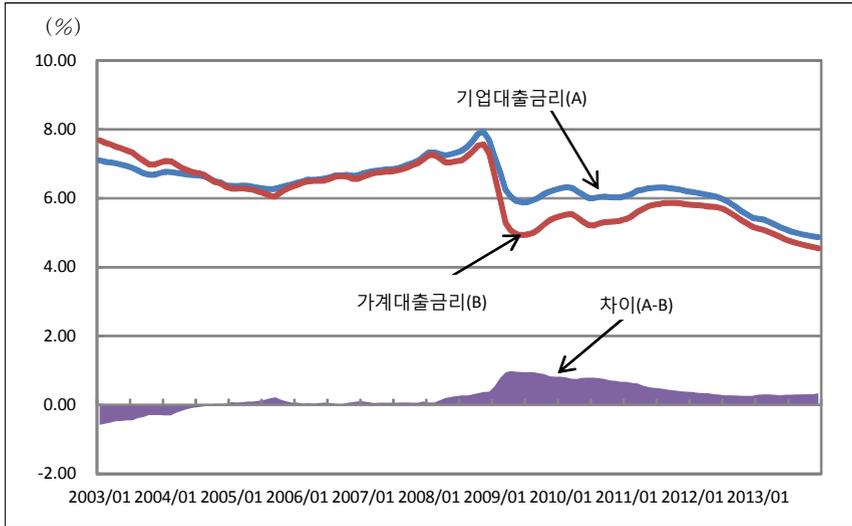
【그림 12】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추이(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국내은행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순이익 내지는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상대적 비중이 상승(하락)할수록 은행의 부가가치는 감소(증가)한다. <그림 13>은 2003년 이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와 기업대출금리 추이인데, 전반적으로 기업대출금리가 가계대출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중에는 둘 간의 차이가 평균 91bp까지 확대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30bp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계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13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대출 대비 담보대출 비중은 평균 50.7%에 불과하나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69.3%에 달한다. 반면 대출채권의 위험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부실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계대출 비중이 상승(하락)할수록 대손상각비용이 줄어들어 은행의 부가가치가 증가(감소)한다. <표 3>에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 추이를 볼 때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부실위험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예금은행의 기업대출금리 및 가계대출금리 추이
(2003년 1월 ~ 2013년 12월)



주: 1) 예금은행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4개 특수은행 (기업 · 산업은행, 농협 · 수협).
2)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3】 국내은행(산은 · 수은 · 농협 · 수협 포함)의 고정이하여신비를 추이
(2009 ~ 2013년)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업 대출 ¹⁾	1.60	2.60	1.73	1.66	2.39
(부동산 PF)	..	16.79	8.14	9.34	15.67
가계 대출	0.49	0.56	0.60	0.69	0.60
(주택담보대출)	0.40	0.50	0.56	0.65	0.56
(신용대출 등)	0.65	0.67	0.69	0.78	0.69
신용카드	1.11	0.97	1.36	1.48	1.34
평 균	1.24	1.90	1.36	1.33	1.79

주: 1) 공공 · 기타부문 포함. 2) 연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따라서 가계대출 비중의 변화가 국내은행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기업대출의 평균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부실채권에 의한 손실이 금리차를 능가할 정도로 크다면 가계대출 비중이 상승할수록 은행의

부가가치는 증가할 수 있다. 참고로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1996~2006년 연간 자료를 분석한 최문수·조봉환(2008)에서는 가계대출 비중과 은행의 순이자마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8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 한상섭·이병운(2012)은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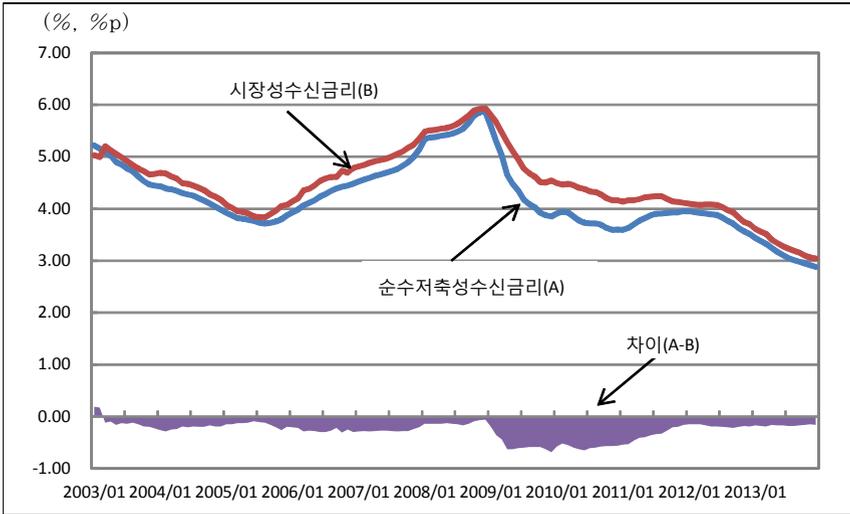
4. 자금조달구조

은행이 부채를 발생시켜서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저축성수신과 시장성수신 두 가지로 나뉜다. 저축성수신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조달 경로인 고객의 예금, 즉 예수금을 일컫는다. 이에 반해 시장성수신은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은행채 발행과 표지어음 매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가 여기에 해당한다.¹²⁾

〈그림 14〉에서 보듯이 단순히 조달비용만을 고려한다면 저축성수신금리가 시장성수신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성수신이 총수신(=저축성수신+시장성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시장성수신 비중'이라 함)이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은 감소한다. 그러나 저축성수신의 경우 조달비용뿐만 아니라 예금보험료 납부, 지급준비금 예치, 영업점 개설·유지 등에 따른 각종 부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시장성수신 비중의 확대가 은행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12) 시장성수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장 넓게는 예수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 즉 '총부채-예수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강종구(2010)는 양도성예금증서·은행채 발행을, 한상섭·이병운(2012)은 양도성예금증서·은행채 발행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박형근·전현우·이도경(2012)은 양도성예금증서·은행채 발행, 표지어음 매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시장성수신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2008)의 통화지표 분류기준에 따라 박형근·전현우·이도경(2012)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예금증서·은행채 발행과 표지어음 매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시장성수신으로 보았다.

**【그림 14】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와 시장성수신금리 추이
(2003년 1월 ~ 2013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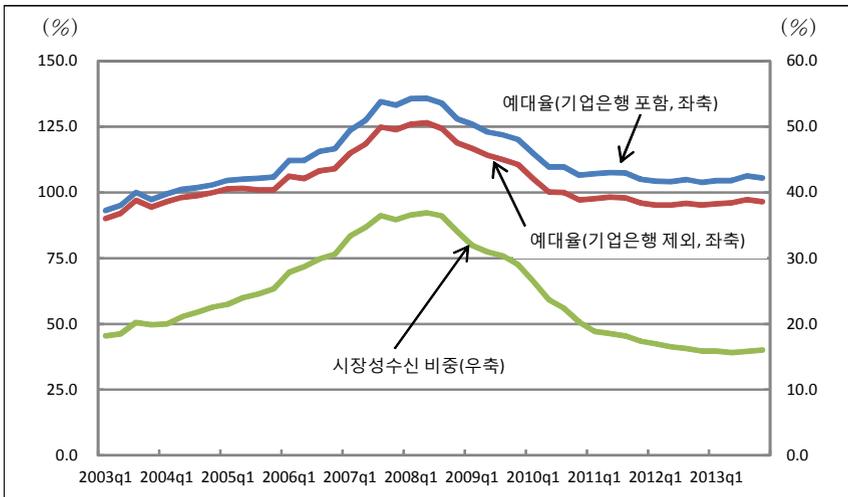
주: 1) 저축성수신은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을 제외한 저축성예금을 의미함.
 2) 예금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4개 특수은행(기업·산업은행, 농협·수협).
 3)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존의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상섭·이병윤(2012)은 1998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고정효과(fixed-effects) 및 확률효과(random-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성수신 비중의 확대가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2003년 이후 분기별 자료에 동적패널자료(dynamic panel data) 분석을 적용한 손진식·김수진(2013)은 비예금자금조달 비중(=1 - 원화예수금/원화부채)이 높아질수록 ROA가 개선된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 연구로는 Demirgüç-Kunt and Huizinga(2010)가 101개국 1,334개 은행 자료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시장성수신과 은행의 ROA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3년 이후 국내은행의 시장성수신 비중과 예대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다. 여기서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으로 정의되는데,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수신으로 대출채원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성수신 비중과 예대율은 <그림 15>와 같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시장성수신 비중과 예대율 추이는 모두 역

U(inverse-U)자 형태를 띠는데, 이는 2006~2008년 은행 간 외형 경쟁과 2010년 3월 정부의 예대율 규제에 주로 기인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은행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대출재원을 은행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예대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은행권의 유동성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정책당국은 2009년 12월 대부분의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100% 이하 유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그 결과 2006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내은행의 예대율(중소기업은행 제외)은 2008년 2/4분기 말 126.5%까지 상승하였다가 예대율 규제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10년 말부터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성수신 비중(중소기업은행 포함)의 경우에도 2008년 2/4분기 말 최고 36.9%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15~16%대까지 떨어졌다.

[그림 15] 국내은행의 시장성수신 비중과 예대율 추이
(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13) i) 박형근·전현우·이도경(2012)에 따르면 2008년 말 당시 국내은행의 예대율은 135.8%로 미국 99.8%, 일본 59.0%, 독일 103.0%, 영국 112.7%, 중국 75.0%, 홍콩 53.1%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ii) 금융당국은 당초 예대율 규제의 적용시기를 2013년말로 결정하였다가 2011년 6월에 2012년 6월 말로 앞당겼다. iii) 중소기업은행은 일반은행이 아닌 특수은행이므로 예대율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부실채권비율

은행의 대출자산은 「은행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 부른다.¹⁴⁾ 대출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대손비용이 발생하므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할 경우 총비용이 증가하여 은행의 부가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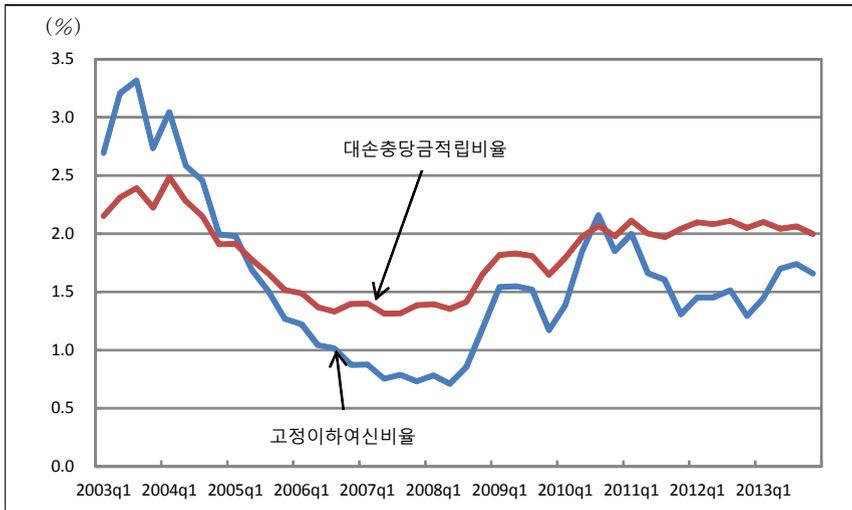
〈그림 16〉은 2003년 이후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두 비율 모두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폭 반등하였다. 다만 2011년부터는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 여신 단계별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정상 0.85% 이상, 요주의 7% 이

14)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은행업감독규정」의 〈별표 3〉).

단계	정의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요주의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정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약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상, 고정이하여신비율, 회수의문 50% 이상, 추정손실 100%)이 존재했기 때문에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K-IFRS 하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실금액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적립하므로 두 비율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기 대손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단순히 부실채권의 상대적 크기만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비해서 은행 부가가치와 더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추이 (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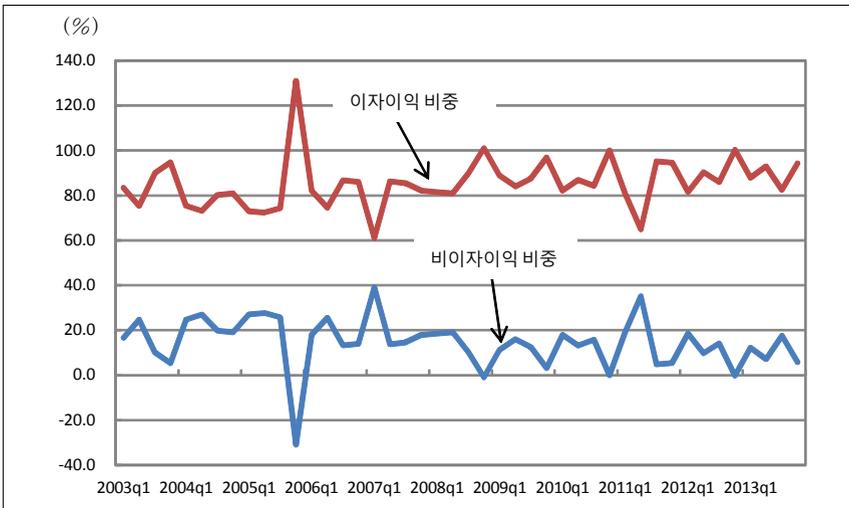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6. 수익구조

은행의 이익은 대개 업무 및 자산의 성격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감독원(2013)은 이자·수수료·기타영업 수익에서 이자·수수료·기타영업비용(단, 기타영업비용에서 대손상각비는 제외)을 차감한 값을 총이익으로 정의한 후 총이익을 다시 이자이익(=이자이익-이자비용)과 비이자이익(=총이익-이자이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장의 서두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자이익은 대체로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 업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다. <그림 17>는 금융감독원(201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 비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다수 분기에서 이자이익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2009~2010년 중 주요국 4대 은행의 수익구조를 살펴본 노진호·송재만(2010)에서도 한국의 이자이익 비중이 80.4%, 미국 75.6%, 영국 51.1%, 유럽 57.5%, 중국 79.5%, 일본 73.5% 등 모든 나라에서 이자이익의 비중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 은행들은 여수신업무 외에도 신탁자산 운용, 외환·파생금융상품 거래,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및 각종 수수료업무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비이자이익도 창출하고 있다.

**[그림 17]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 비중 추이
(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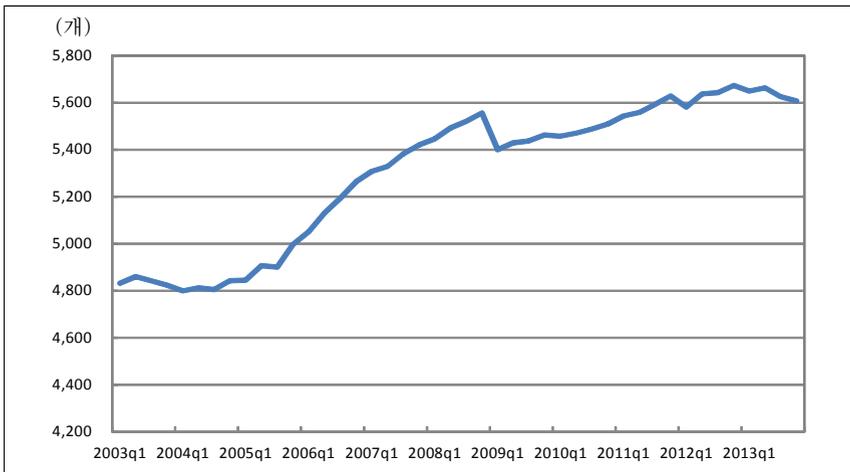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하 '비이자이익 비중'이라 함)과 은행 부가가치 간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이자이익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구조가 그만큼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클 개연성은 존재한다. 선행연구들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먼저 손진식·김수진(2013)은 비이자수익 비중(=비이자수익/영업수익)이 총자산순이익률(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Demirgüç-Kunt and Huizinga(2010)도 수수료가

익(=수수료수익-수수료비용)과 ROA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978~2000년 중 미국 은행별 자료를 분석한 Stiroh(2004)는 비이자이익 비중과 순이익증가율 간에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존재하며 비이자이익 비중이 44.6%일 때 순이익증가율이 극대값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당시 미국 은행들의 평균 비이자이익 비중이 15% 정도임을 감안할 때 비이자이익 비중의 상승은 순이익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비이자이익 비중과 ROA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끝으로 Smith, Staikouras and Wood(2003)는 비이자이익의 증가가 수익의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7. 영업점포 수

은행의 지점 수가 늘어나면 영업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모두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비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점 수 증가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그림 18>는 국내은행의 영업점포(국내출장소 및 해외점포 제외) 수 추이로서 2009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전 기간에 걸쳐 국내지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국내은행의 영업점포 수 추이(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



주: 국내출장소 및 해외점포(지점·사무소·현지법인)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IV. 은행산업 부가가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방법

개별 은행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은행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은행별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제Ⅲ장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되, 실질 GDP 성장률과 계절조정 더미변수(dummy variables)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계절조정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 것은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기별 부가가치에 계절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산업의 과점화 정도(또는 시장집중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에 발생한 은행의 구조조정이 1건에 불과하여 시장구조가 은행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정모형은 식 (2)과 같이 개별 은행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u_i 를 고정된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사용하였다. '관측되지 않은'(unobserved) 은행 고유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y_{i,t} = \beta_0 + X_{i,t-1}'\beta_1 + Z_{i,t}'\beta_2 + Macro1_{t-1}'\beta_3 + Macro2_t'\beta_4 + D_t'\beta_5 + u_i + \epsilon_{i,t} \quad (2)$$

여기서 종속변수 $y_{i,t}$ 는 은행 i 의 t 분기 부가가치를, $X_{i,t-1}$ 와 $Z_{i,t}$ 는 각각 $(t-1)$ 분기 및 t 분기 시점의 은행별 설명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각 은행의 t 분기 부가가치는 $(t-1)$ 분기 말의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창출되므로 $X_{i,t-1}$ 에는 총자산, 레버리지비율, 대출자산 비중, 가계대출 비중, 자금조달구조(예대율 또는 시장성수신 비중), 비이자이익 비중, 영업점포 수 등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포함된다.¹⁵⁾ 그런데 만약 t 분기 중에 발생한 재무상태

15) 비이자이익 비중은 주식 매각 등의 일회성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값을 얻기 위해 $(t-4)$ 분기~ $(t-1)$ 분기의 4개 분기 이동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의 변화가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 ($t-1$)분기가 아닌 t 분기 시점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t 분기 부가가치는 ($t-1$)분기 말의 부실채권비율뿐만 아니라 t 분기 중에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크기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채권비율은 설명변수 $Z_{i,t}$ 에 포함된다.¹⁶⁾ $Macro1_{t-1}$ 과 $Macro2_t$ 는 각각 ($t-1$)분기 및 t 분기 시점의 시계열 설명변수를 의미한다. $Macro1_{t-1}$ 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Macro2_t$ 에는 시장이자율이 포함되는데, 이는 수량효과가 가격효과보다 늦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시장이자율(가격변수)은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를 곧바로 변화시키지만 자금의 수요와 관계있는 경제성장률(수량변수)은 1분기가 지난 후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¹⁷⁾ 끝으로 D_t 는 계절조정 더미변수 벡터를, ϵ_{i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부가가치, 총자산, 영업점 수 등의 수준변수(level variables)는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였으며, 더미변수 벡터 D_t 는 완전공선성(perfect collinearity)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개의 더미변수(2/4분기 · 3/4분기 · 4/4분기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한편 은행별 특성 오차항(u_i)과 설명변수가 서로 무관할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 대신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모두 추정한 뒤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은행별 특성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으로써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16)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Z_{i,t}$ 에 해당하는 부실채권비율은 't분기 말 부실채권비율'이 아니라 '($t-1$)분기 말과 t 분기 말 부실채권비율의 평균'이다. 만일 't분기 말 부실채권비율'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면 시간 순서로 볼 때 종속변수가 오히려 설명변수 $Z_{i,t}$ 를 결정하는 셈이 된다. 한편 대출채권의 부실화는 외생적인 사건(exogenous event)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명변수 $Z_{i,t}$ 의 내생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17) 기본적으로 시장이자율은 내생성이 존재하는 설명변수이다. 예를 들면 CD금리의 상승은 예대금리차 축소를 통해 은행 부가가치를 감소시키지만,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은행이 자산 확대를 통한 이윤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CD발행을 늘린다면 역으로 부가가치 감소가 CD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장이자율 변수가 콜금리뿐이므로 내생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콜금리는 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변수에 가깝다.

모형 추정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II장의 분기별 부가가치 추계에 활용하였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은행별 재무제표를 사용하였고 콜금리, 실질GDP 성장률 등의 시계열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은행과 기간은 총 14개 국내은행의 44개 분기(2003년 1/4분기~2013년 4/4분기)였다. 모형 추정에 사용한 변수와 예상되는 계수의 부호를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표 4】 모형의 변수 및 계수의 예상부호

구분	변수(변수명)	설 명	예상부호
종속변수	로그부가가치(InVA)	부가가치의 로그변환값	
	로그총자산(InAsset)	총자산의 로그변환값	+
	레버리지비율(Leverage)	총자산/자기자본(%)	-
	대출채권 비중(Loan/Asset)	대출채권/총자산(%)	불분명
	가계대출 비중(HHLoan/Loan)	가계대출/대출채권(%)	불분명
	예대율(Loan/Deposit)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불분명
설명변수 (은행특성)	시장성수신 비중(NondepositRatio)	시장성수신/총수신(%)	불분명
	고정이하여신비율(NPL/Loan)	고정이하여신/총여신(%)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Provision/Loan)	대손충당금적립금/총여신(%)	-
	비이자이익 비중 (NoninterestRatio)	비이자이익/총이익(%)	+
	로그점포수(InBranch)	국내지점 수의 로그변환값	불분명
	설명변수 (시계열)	콜금리(CallRate)	분기별 평균금리(무담보 1일물 기준), 정책금리 대응변수
실질GDP 성장률(GDPGrowth)		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	+
더미변수 (계절조정)	2분기 여부 더미변수 (DummyQ2)	2분기=1, 기타 분기=0	-
	3분기 여부 더미변수 (DummyQ3)	3분기=1, 기타 분기=0	-
	4분기 여부 더미변수 (DummyQ)	4분기=1, 기타 분기=0	-

예대율과 시장성수신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각각 서로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상 동일한 변수이므로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두 변수 중 하나씩만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대율과 시장성수신 비중 간의 상관관계수는 0.843,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 간의 상관관계수는 0.796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기타 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대부분 0.5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⁸⁾ 한편 콜금리는 금융시장의 단·장기금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초단기금리이면서 동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대용변수(proxy)에 해당하므로 시장이자율이나 중앙은행 정책금리 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무방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정책금리로 간주한다.

【표 5】 설명변수 간 상관계수

	In Asset	Leverage	Loan /Asset	HHLoan /Asset	Loan /Deposit	Non-deposit Ratio	NPL /Loan	Provision /Loan	Non-interest Ratio	In Branch	Call Rate	GDP Growth	Dummy Q2	Dummy Q3
Leverage	-0.247													
Loan/Asset	0.223	-0.151												
HHLoan/Asset	0.481	-0.023	-0.226											
Loan/Deposit	0.330	-0.059	0.366	-0.259										
NondepositRatio	0.253	0.136	0.071	-0.041	0.843									
NPL/Loan	-0.018	0.325	0.093	0.014	-0.172	-0.296								
Provision/Loan	0.197	0.021	0.101	0.119	-0.019	-0.185	0.796							
NoninterestRatio	0.272	-0.024	-0.198	0.302	0.026	0.107	-0.109	-0.073						
InBranch	0.976	-0.143	0.271	0.514	0.277	0.210	0.040	0.204	0.272					
CallRate	-0.087	0.327	0.009	0.061	0.068	0.214	-0.176	-0.294	0.102	-0.030				
GDPGrowth	-0.019	-0.010	0.015	0.025	-0.006	0.013	-0.041	-0.069	-0.036	-0.007	0.120			
DummyQ2	0.007	0.053	-0.047	-0.003	-0.007	-0.009	0.031	0.026	0.024	-0.005	-0.001	0.007		
DummyQ3	-0.012	0.009	-0.008	-0.004	-0.011	-0.009	0.022	-0.013	0.006	0.000	0.023	0.024	-0.333	
DummyQ4	0.004	-0.023	0.006	-0.008	0.019	0.001	-0.045	-0.026	0.006	0.002	-0.026	0.157	-0.333	-0.333

2. 추정결과

국내은행의 부가가치 결정요인에 관한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는 <표 6>와 같다. 예대율과 시장성수신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의 경우 총 4개의 변수조합이 가능하므로 추정결과 역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에서 모형 (1)은 예대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2)는 시장성수신 비중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3)은 예대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

18) 예외적으로 로그총자산(lnAsset)과 로그점포수(lnBranch) 간 상관계수가 0.976에 달하였으나, 양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과 로그총자산 변수만 포함한 모형을 모두 추정해본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을, 끝으로 (4)는 시장성수신 비중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각각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6】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1)	(2)	(3)	(4)
InAsset {t-1}	0.6437*** (0.1038)	0.6661*** (0.1121)	0.7341*** (0.1079)	0.7411*** (0.1128)
Leverage {t-1}	-0.0187** (0.0065)	-0.0228*** (0.0076)	-0.0205*** (0.0058)	-0.0230*** (0.0068)
Loan/Asset(%) {t-1}	-0.0011 (0.0060)	-0.0000 (0.0061)	-0.0019 (0.0057)	-0.0009 (0.0055)
HHLoan/Loan(%) {t-1}	0.0103 (0.0108)	0.0107 (0.0103)	0.0133 (0.0099)	0.0134 (0.0096)
Loan/Deposit(%) {t-1}	0.0005 (0.0008)		0.0005 (0.0008)	
NondepositRatio (%) {t-1}		0.0039 (0.0025)		0.0031 (0.0028)
NPL/Loan(%) {t}	-0.0731** (0.0285)	-0.0515 (0.0308)		
Provision/Loan(%) {t}			-0.1890*** (0.0533)	-0.1671** (0.0637)
NoninterestRatio (%) {t}	0.0020*** (0.0007)	0.0020*** (0.0007)	0.0018*** (0.0006)	0.0018*** (0.0006)
InBranch {t-1}	-0.3434 (0.4380)	-0.4946 (0.3986)	-0.4539 (0.4312)	-0.5614 (0.3838)
CallRate(%) {t}	0.0485** (0.0189)	0.0451** (0.0200)	0.0392* (0.0185)	0.0350* (0.0192)
GDPGrowth(%) {t-1}	0.0561** (0.0208)	0.0563** (0.0210)	0.0543** (0.0201)	0.0549** (0.0205)
DummyQ2	-0.1549*** (0.0268)	-0.1554*** (0.0276)	-0.1588*** (0.0272)	-0.1581*** (0.0276)
DummyQ3	-0.1781*** (0.0408)	-0.1776*** (0.0408)	-0.1818*** (0.0409)	-0.1803*** (0.0404)
DummyQ4	-0.3092*** (0.0419)	-0.3080*** (0.0423)	-0.3120*** (0.0423)	-0.3107*** (0.0427)
Constant	0.2850 (1.9985)	0.8105 (1.7605)	0.1588 (1.9164)	0.5998 (1.6296)
Observations	563	563	563	563
R ²	0.8455	0.7965	0.8216	0.7825

주: () 내는 은행 내 자기상관(autocorrelation)과 은행 간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국내은행 부가가치 결정요인 중에서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총자산, 레버리지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또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비이자이익 비중, 정책금리, 경제성장률, 2/4분기 더미변수, 3/4분기 더미변수, 4/4분기 더미변수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총자산과 비이자이익 비중, 3개의 분기 더미변수는 추정결과 모형 (1)~(4)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레버리지비율의 경우에도 (1)은 5% 수준에서, (2)~(4)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출자산 비중과 가계대출 비중, 예대율(또는 시장성수신 비중), 영업점포 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III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들의 계수 크기를 살펴보면, 먼저 총자산이 10% 증가하면 부가가치는 6.4~7.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총자산 증가가 부(-)의 가격효과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0%의 수량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수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약 3%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는 7% 내외만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레버리지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만일 자기자본규모가 일정한 상태에서 총자산만 10% 늘어난다면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7% 내외보다 작게 증가하게 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레버리지비율이 1만큼 상승할 때 부가가치는 1.9~2.3% 감소한다. 따라서 주어진 자기자본규모 하에서 현재 레버리지비율이 10이라면 총자산 10% 증가는 최종적으로 부가가치를 4.4~5.3% 증가시키는 데 그칠 것이다. 이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은행은 총자산을 확대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1%p 상승할 때에는 부가가치가 각각 5.1~7.3%, 16.7~1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모형 (2)에서의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는 등 다른 변수들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은행 부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III장의 논의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각각 1.7%와 2.0%이므로 이들 비율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떨어뜨릴 경우 국내은행

의 부가가치는 최대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비이자이익 비중이 1%p 상승하면 은행 부가가치가 약 0.2%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비이자이익 비중이 현재의 10% 내외에서 20%까지 상승할 경우 약 2%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정책금리가 1%p 하락하면 부가가치가 3.5~4.9% 감소한다. 2013년도 은행의 실질부가가치가 약 18.3조원이므로 정책금리 1%p 하락은 부가가치를 0.8조원 내외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은행(2013)이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부가가치 감소폭 1.4조원보다 훨씬 작은 수치이다. 한편 직전 분기의 경제성장률이 1%p 상승 시 은행의 부가가치는 5.4~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연말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계절성이 확인되었다. 2/4분기와 3/4분기 부가가치는 1/4분기에 비해 약 16~18% 작았으며, 4/4분기의 경우에는 1/4분기보다 30% 이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변동요인 시뮬레이션

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직전 3개년(2005~2007년)과 최근 3개년(2011~2013년)을 비교해보면, <표 7>과 같이 2011년중에 3.1조원의 일회성 주식매매이익이 존재했음에도 두 시기 간에 부가가치가 약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은행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었는지를 2절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해 보기로 한다.

두 기간 중 주요 재무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총자산은 약 46% 증가하였다. 다만 총자산 증가율에 비해 자기자본 증가율이 더 컸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은 16.1에서 12.9으로 3.2만큼 하락하였다. 대출자산 비중의 변화는 미미했던 반면(1.0%p 상승) 가계대출 비중은 정부의 DTI 규제 및 가계부채 억제 등으로 6.3%p, 시장성수신 비중은 예대율 규제의 영향으로 11.2%p 각각 하락하였다.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0.6%p 상승하였고, 비이자이익 비중은 펀드 판매수입 감소 등으로 5.6%p 하락하였다. 영업점포 수는 5,096개에서 5,608개로 약 10% 증가

하였다. 한편 두 시기 간 거시경제여건 변화를 보면, 정책금리와 경제성장률(연간)이 각각 1.7%p와 2.0%p 하락하였다.

【표 7】 금융위기 이전과 최근의 국내은행 주요 지표 비교

	2005~07년 연평균(A)	2011~13년 연평균(B)	증감(B-A)
부가가치(십억원) 〈로그변환〉	23,776.1 〈10.08〉	23,901.6 〈10.08〉	125.5 〈0.01〉
총자산(십억원) 〈로그변환〉	890,568.0 〈13.70〉	1,412,429.2 〈14.16〉	521,861.2 〈0.46〉
레버리지비율(%)	16.1	12.9	-3.21
대출자산 비중(%)	70.2	71.3	1.04
가계대출 비중(%)	50.6	44.3	-6.30
시장성수신 비중(%)	28.4	17.2	-11.23
대손충당금적립비율(%)	1.49	2.05	0.57
비이자이익 비중(%)	17.8	12.2	-5.60
영업점포 수(개) 〈로그변환〉	5,096 〈8.54〉	5,608 〈8.63〉	512 〈0.10〉
정책금리(%)	4.10	2.92	-1.65
경제성장률(%)	4.9	2.9	-1.97

주: 부가가치와 총자산은 실질변수 기준.

〈표 7〉의 주요 지표 증감에 〈표 6〉의 계수 추정결과를 곱하면, 〈표 8〉와 같이 각 요인이 최근 은행산업의 위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할 수 있다. 이때 〈표 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계수값은 0이라고 간주한다. 즉, 대출자산 비중과 가계대출 비중, 시장성수신 비중, 영업점포 수는 부가가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은행산업의 성장세 둔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과 경제성장률의 변동이다. 두 요인은 은행산업의 부가가치를 각각 10.1%와 10.9%만큼 감소시켰다. 경제성장률은 외생적인 요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가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한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책금리 인하도 부가가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리 하락이 부가가치 감소에 기여한 정도는 -6.9%로 추정된다. 비이자이익 비중 하락은 부가가치를 1.1%만큼 감소시켰는데, 특히 펀드·보험 등에 대한 판매수수료수입 감소가 은행산업 부가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총자산 증가와 레버리지비율 하락이 다른 요인의 부가가치 감소분을 크게 상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역성장은 피할 수 있었다.

【표 8】 최근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감소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단위: %)

	기여도
총자산	32.0
레버리지비율	6.8
대손충당금적립비율	-10.1
비이자이익 비중	-1.1
정책금리	-6.9
경제성장률	-10.9
기 타 (미설명요인)	0.4
합 계	0.5

V. 맺음말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내은행 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세직·홍승기(2013)의 부가가치 추계방식을 원용하여 국내은행의 분기별 부가가치를 계산한 후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패널자료모형(panel data model)을 구축하였는데, 부가가치는 산업의 전반적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의 지속가능성 내지는 성장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재무제표 상의 손익계산서 구성항목으로 분해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가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이자율, 총자산, 레버리지비율, 대출자산 비중, 대출자산의 구성, 자금조달구조, 부실채권비율, 수익구조, 영업점포 수 등의 특성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변수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은행산업 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은행의 여신건전성이 부가

가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행 부실채권비율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떨어뜨릴 경우 국내은행의 부가가치는 최대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장률, 정책금리 등의 거시경제변수도 은행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총자산의 확대 역시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산 증가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비율의 상승을 동반하므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은행의 수익구조도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부가가치는 늘어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최근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성장세 둔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실채권비율 상승과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부가가치 감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외생적인 요인이므로 결국 국내은행 여신건전성 악화가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저금리도 은행의 부가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펀드·보험 등에 대한 판매수수료수입 감소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의 감소 역시 은행산업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레버리지비율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총자산 증가가 다른 요인의 부가가치 감소분을 상쇄함으로써 최근 은행산업이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본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경영전략은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고 일자: 2014. 11. 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4. 12. 3. 게재 확정 일자: 2014. 12. 14.

◆ 참고문헌 ◆

- 강종구 (2010) “은행의 시장성수신 비중 결정요인과 시사점,” 『국제경제연구』, 제16권 제3호: 21-49.
- 금융감독원 (2013), 『은행경영통계』, 2013년도, 업무자료 금융통계 2013-1호,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 김석원 (2007) “통화정책과 금융기관의 비대칭적 금리조정,” 『금융경제연구』, 제

293호.

- 김세직·홍승기 (2013)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 『한국 은행산업의 현황과 발전가능성 연구보고서』, 장은공익재단.
- 노진호·송재만 (2011) “국내은행 수익구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하나 금융정보 제90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창균·연태훈 (2009) “은행의 순이자마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제15권 제2호: 137-166.
- 박형근·전현우·이도경 (2012) “예대율 규제에 유용성 평가 -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BOK 경제리뷰 2012-6호, 한국은행.
- 손진식·김수진 (2013) “국내은행의 영업행태와 위험성 및 수익성 간의 관계: 개별은행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 BOK 경제리뷰 2013-8호, 한국은행.
- 윤재호 (2011) “통화정책 국면에 따른 은행예대금리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 『금융연구』, 제25권 제2호: 29-55.
- 최문수·조봉환 (2008), “국내은행의 순예대마진의 결정요인과 대출자산의 구성에 대한 실증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5권 제3호: 109-124.
- 한국은행 (2008), 『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해설』, 한국은행.
- _____ (2013), 『금융안정보고서』, 2013년 10월호, 한국은행.
- 한상섭·이병운 (2012)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가 은행수익성 및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KIF 연구보고서 2012-05호, 한국금융연구원.
- Demirgüç-Kunt, Asli and Harry Huizinga (2010), “Bank Activity and Funding Strategies: The Impact on Risk and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8(3): 626-650.
- Smith, Rosie, Christos Saikouras and Geoffrey Wood (2003) “Non-interest Income and Total Income Stability,” Working Paper No. 198, Bank of England.
- Stiroh, Kevin. J. (2004) “Diversification in Banking: Is Non-interest Income the Answer?,”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6(5): 853-882.

Determinants of the Value-added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Joon Mo Kwon* · Kunhong Kim** · Young Sik Kim***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the value-added of Korean banks, considering that the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ve tended to reduce the profitability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Since the value-added can be decomposed into income statement components, w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e following items that could directly affect the value-added: market interest rate, total asset value, leverage ratio, relative weight of loan assets, composition of loan assets, funding structure, propor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come structure, and the number of branches. Fixed-effects model of panel data was used in our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 soundness of the loan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d the value-added. It is expected that, if the proportion of the non-performing loan is reduced to half of the current level, value-added of the domestic banks will be increased by the maximum of 19%.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 Economist, Bank of Korea, e-mail: jmkwon@bok.or.kr. The views expressed herein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views of the Bank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llym University, e-mail: kimku@hallym.ac.kr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kimy@snu.ac.kr

as GDP growth rate and the policy interest rate were also important. It was also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total value of assets could have positive effect on the value-added. However, the effect of the total value of assets on the value-added is considered to be small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the rise in the leverage ratio. Finally, the structure of bank income also affected value-added. It was found that the value-added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relative weight of non-interest income.

KRF Classification: B030602

Key Words: Korean banking industry, determinants of value-added, soundness of bank loans, fixed-effects model, panel data